

동네문제 해결에 옹골찬 활약

지역사회에서 일한다 3

인천 해님여성회

인천시 북구 십정1동 8~13동 산동네 어머니로 구성된 해님여성회(대표 홍미영·37)는 쓰레기, 하수도, 도로시설, 여성건강, 자녀교육 등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지역모임이다.

85년 4월, 집값이 싸 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십정 1동으로 이사는 홍씨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돌봐주기 위해 해님 놀이방과 공부방을 열면서 해님여성회가 조직됐다. 바로 이 놀이방과 공부방에 아이를 맡기는 어머니들의 모임이 '해님여성회'다.

“이곳으로 이사온 뒤 살림에 보태려고 국교2년, 여섯살난 두 아이를 집에 두고 ‘일일공부’ 시험지를 돌렸거든요? 아이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끝에 일하는 어머니들을 위해 자원봉사 겸해서 놀이방과 공부방을 시작했지요. 공장으로 일다니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 없었어요.”

여성민우회(회장 이효재)의 후원금으로 마련한 10평짜리 해님 공부방은 주중엔 아이들의 공부방으로, 토요일 오후엔 해님여성

회 모임터로, 일요일엔 인천지역 진료소연합회가 동네주민들을 무료진료해 주는 진료소로 다양하게 쓰인다. 동네주민 공동관심사가 생겼을 땐 토론장으로 쓰이기도 한다.

십정1동 8~13동은 20여년전 주안 5, 6 수출공단이 들어서면서 철거민이 집단이주한 빈민촌이다. 자동차도 올라가기 힘든 경사가 심한 비탈길, 계단으로

대체로 본드로 가족을 붙이거나 미싱 또는 납땜을 하는 일이다. 하루 8천원씩으로 월수입 30만원 선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 공단으로 일 다니는 여성도 많고, 우유·아쿠르트·화장품·시험지 등을 배달하는 여성들도 꽤 된다.

해님공부방에 국교 1, 4년 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이근숙(34)씨는 “여성회에 참여하면서 지역

들이 그동안 해온 일은 적지 않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1천원을 벌기 위해 하루종일 껌을 씹어 침을 빨는 신종 돈벌이 침빨기가 온동네를 휩쓸던 89년엔 회원들이 주민을 찾아다니며 설득, 건강에 해로운 침빨기를 동네에서 사라지게 했다.

90년초엔 집에 전화가 없는 주민들을 위해 전화국·구청에 진정서를 내 장거리 시외전화를 할

놀이방 개설이 모임 모태...회원 거의가 취업자

“지자체 선거에 본때 보여주자”의견 모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는 미로처럼 생긴 골목길, 좁다란 길 양편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한뼘짜리 마당도 없는 작은 집들. 그래서 이 동네 아이들은 위험하게도 담벼락과 골목길 계단을 놀이터 삼아 길에서 논다.

십정동 산동네 주민은 2만여명. 이들의 60%가 공단으로 일을 다닌다. 기혼여성들도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게 이 지역 여성들의 특징이다.

기혼여성의 절반이상이 일당제로 집근처 가족·전자제품 영세제조업체에 나가 부업을 하는데,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큰 소득”이라면서 “구청·동사무소에서 신경을 써주지 않는 산동네 쓰레기, 하수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험잡긴 하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해님여성회 회원은 20~40대 주부 20여명에 지나지 않지만 이

수 있는 DDD전화를 가설했고, 인천지역 진료소연합회와 연대해 인천지역 복강경시술 실태조사를 한 뒤 보건소와 가족계획협회에 ‘수술 뒤 10년동안 후유증 치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직 가족계획협회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빈민지역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이 문



좁은길, 담벼락을 놀이터 삼아 놓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해님여성회 어머니들은 “올해엔 아이들이 맘놓고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제는 해님여성회에서 꼭 해결할 계획”이라고 홍미영씨는 말했다.

또한 동네신문 <해님>발간, 동네도서관 ‘해님쉼터’ 운영, 잘 안 입을 옷을 싸게 사 입을 수 있는 ‘알뜰 헌옷가게’ 운영, 동네 주부들의 부업을 위해 천자르기·미숫가루 만들기·고추순질 등 공동부업, 여성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어머니교실 운영, 단오와 연말에 동네주민잔치 개최 등 다양

한 일을 하고 있다.

“올해엔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동네에 생겼으면 좋겠어요.” “산동네 중턱은 5천원, 꼭대기는 1만원 하는 쓰레기 치는 비용문제가 해결됐으면 해요.” “꼭대기에는 배달도 잘 안되고 값도 더 비싸지는 연탄, 프로판가스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동네 소독할 때 큰길가만 하지 말고 골목길까지 배달라고 구청에 요구합니다.” “89

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우리동네 개발은 주민이 중심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올 한해동안 관심을 갖고 풀어나갈 지역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보던 해님여성회 회원들은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3월에 있을 지자체 선거에서 우리 십정동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의원으로 뽑읍시다!”

<신연숙 기자>